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영국립범죄청, '암호화폐' 전문수사팀 구성
 - 1.5 영국립범죄청*은 사기 및 테러 활동과 연계된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경찰청에 암호화폐 기술전문가를 배치한 데 이어, '암호화폐' 전문팀(5명)을 구성, 디지털 수사능력을 강화할 방침
 - * 지난 '13년에 설립된 내무부 산하 법집행기관(4천여명)으로, 인신매매, 무기·마약밀매, 사이버 범죄, 테러·국경 경제범죄 등을 담당해 영국의 FBI로 불림
- 獨경찰, '독극물 테러' 모의 이란인 형제 체포
 - 1.8 獨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실현 목적의 테러를 위해 청산가리·리신(Lysine, 피마자 씨 속에 있는 독성 물질)을 입수한 32세·25세의 이란인 형제를 체포하였으며, 추가 조사시까지 구속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
 - *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~15년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미주

- 美, ISIS 자금지원 튀르키예 개인·업체 '제재 대상' 지정
 - 1.6 美재무부는 ISIS 자금지원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활동 중이던 「부루칸 알카투니」 등 자금책 4명과 자금 송금에 사용했던 사업체 2곳에 대해 「美행정명령 13224호」*에 의거, '제재 대상'으로 지정
 - * '01년 9·11테러 직후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쏘세계 테러조직·지원세력 등에 대해 미국내 모든 자산동결, 거래정지 등 제재 가능
- 美, 과거 'ISIS' 합류 미국인 여성 본국 복귀 희망
 - 1.9 美언론은 지난 '14년 ISIS에 합류 후 자신의 트윗에 美 본토 공격 감행을 촉구하고, ISIS 대원과 세 차례 결혼한 뒤 시리아 로지 수용소에 수감된 미국인 여성 「호다 무타나」(28)가 본국 복귀를 희망 중이라고 보도
 - * 美연방대법원은 '22.1월 「무타나」 국적 회복과 재입국 신청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

아 · 태평양

- 日, 국내선 여객기 '폭파 위협'에 긴급 착륙
 - 1.7 日나리타공항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젯스타 재팬 여객기(GK 501편)가 06:20경 '폭발물 설치·폭파 예고 위협' 국제전화(독일發) 접수 후 인근 주부공항에 긴급 착륙, 탈출과정에서 일부 승객 경미한 부상 발생
 - * 日경찰은 화물칸 수하물을 엑스선 등으로 조사하였으나 폭발물은 미발견
- 이슬람 테러단체(ISIS-K), 아프간 현지 '중국인' 공격 지속 전망
 - 1.9 외신은 테러단체 ISIS-K(호라산지부)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(대부분 이슬람교도) 탄압을 이유로 아프간 현지 중국인 겨냥 공격을 계속할 것이며, 탈레반 정권과 현지 안보 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
 - * 중국-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구리·석유 등 자원개발을 매개로 협력 강화 중

중 동

- 이란, 지도자 모욕 佛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' 경고
 - 1.5 이란 외무부는 지난 달부터 이란 反정부 시위 지지 의미에서 이란 고위 정치·종교지도자를 풍자하는 만화를 게재한 佛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'*에 대해 강력 경고 및 佛정부에 제재 촉구
 - * '15년 이슬람 예언자 「무함마드」를 만평소재로 삼았다가 총격 테러(사망 12명)가 발생하였으며, 최근 이란 지도자 「하메네이」를 비판하는 풍자만화 게재
- 이스라엘, 공공장소 '팔레스타인 깃발' 금지령
 - 1.9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軍 납치살해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아랍계 남성이 자신의 고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든 행위가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깃발 금지 명령
 - * 극우성향 이스라엘 정권의 국가안보장관 「벤-그리브」는 “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행위는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행위와 같다”고 부언

튀르키예, 술탄 아흐메트 광장 자살폭탄테러

- '16.1.12 10:20경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주요 관광지이며,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, 용의자 포함 11명 사망, 15명 부상
 - * 테러범 제외 사망자 10명 중 9명은 독일인, 1명은 페루인이며, 부상자 중에는 독일·노르웨이·페루 뿐 아니라 한국인도 1명 포함
 - 당시 한 남성이 단체 관광객이 모여있던 아흐메트 광장에서 폭탄을 터트렸으며 밀집된 인파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파악
 - 언론은 튀르키예 정부가 동 사건 3개월 전인 '15.10.10 수도 앙카라 폭탄 테러(사망 102명, 부상 500여명, '국가 애도기간 선포') 이후 대형 테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
- 한편, 튀르키예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후인 1.14 테러 용의자 5명을 검거하였으며, 모두 ISIS 대원이라고 발표
 - 자폭 테러범은 사우디아라비아 태생의 시리아인 ISIS 대원 「나빌 파들리」(28세)로, 과거 시리아 알레포대학에서 치의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으나 시리아 반군에 합류했다가 ISIS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

— < 튀르키예 앙카라 폭탄 테러('15.10.10) > —

- (사건개요) '15.10.10 오전 10시경,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에서 '노동·평화·민주주의'라는 집회 개최 도중 폭탄 2개가 폭발
 - ※ 당시 튀르키예 혁명적 노동조합 총연맹, 인민민주당, 튀르키예 공무원 연합 등 쿠르드계 정당과 반정부 성향 단체가 집결
- (피해규모) 사망 102명, 부상 500여명
- (사건배후)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테러단체는 없었으나, 터키 정보당국은 자살폭탄 방식으로 공격한 점 등을 미뤄 테러주체는 수니파 무장조직인 ISIS나 PKK 또는 극좌 성향인 혁명인민해방전선(DHKP-C) 등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
- (기타) 「아흐메트」 터키 총리는 '터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'이라고 언급하며 사흘 동안 '국가 애도기간' 선포